

# 느림

**참**으로 바쁘게 삽니다. 속도의 병에 걸린 현대인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느림'에서 그 병의 처방을 찾고자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욕심을 덜 부리려고 합니다. 명예나 부를 추적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느리게'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럼 '느림'을 동사로 형상시키면 어떤 모습일까요? '느림'이란 화두를 들고 삶의 여유를 맛보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활 속 곳곳에 배어든 느림의 미학을 담아보았습니다.



사진-박재원 기자

## 넓어질수록 낮고 느려지는 물처럼 ...

강석주 시인의

느림 예찬

평안하게 지내시지요? 제 거처에는 복숭아꽃 살구꽃 배꽃이 지고 지금은 연산홍 붉은 꽃이 한창입니다. 금빛 환한 햇살 아래 난만하게 핀 꽃들은 기분을 화창하게 만듭니다. 벌과 나비들은 꽃들 주변에서 낭랑 거리고 바람은 꽃들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꽃 빛도 좋지만 꽃들 뒤 묵은 가지에 듣는 연초록 잎들도 볼 만합니다. 모란과 작약은 쑥쑥 꽃대를 밀어 올립니다. 밤 되면 무는 개구리 때 울음소리가 귀를 청명하게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단전호흡과 명상을 한 뒤 찬물로 낮을 씻고 나옹 선사의 선시(禪詩)를 읽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 창공은 나를 잡고 티 없이 살라하네 /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덧없다 하지 않고 / 우주는 나를 보고 곳 없다 하지 않네 /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 강같이 구름 같이 말없이 가라하네."

새벽에 읽은 것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골에 내려와 산 지 다섯 해가 됐지요. 농경사회에서는 자연 살아가 당연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며 사람들은 자연과 시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인은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서정주)고 노래했지만, 교육과 문화의 변방지대인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신 나간 짓이지요. 그럼에도 사람은 타고나기를 꽃과 나무와 숲을 바

라보며 마음이 화창해지고 기쁨을 느낍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꽃과 나무를 실내에 들고, 주말에는 산을 찾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명절에는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본능에 속한 일이지요. 왜 사람들은 시골을 찾고 고향을 찾는 것일까요? 꽃이 피고 맑은 강이 흐르는 고향에서의 삶은 심미 감각의 근거이며, 자연 속에서 느린 리듬을 타고 흐르던 삶이 행복한 삶의 한 원형인 까닭이지요.

자연의 풍경이란 단순한 자연의 물리적 형상을 넘어서서 자아와 교감하며 자아를 저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 무엇입니다. 사

선비들이 꿈꾼 유토피야, 일종의 폐쇄공간(避世空間)입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 씨나 뿌리며 살이라 한다 / 발이나 갈며 살이라 한다 //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 아들 낳고 딸을 낳고 / 흙담 인편에 호박 심고 / 들쭉레처럼 살이라 한다 / 속대밭처럼 살이라 한다(후략,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풍 홀풍 흩어져 비 개인 나무 /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재 나무에 / 아흐레 나흘 찾아 박기분 파는 /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 산은 날더러 들

### 더 천천히 단순하게 살아야 본질에 가까워져요

람은 풍경을 낳고, 풍경은 사람을 낳고 기쁨니다. 수려한 산과 들, 계곡과 폭포, 단애들, 소쇄원(瀟灑園)과 같은 인공정원은 우리를 심미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예부터 군자들은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을 발품 팔아가며 찾아가서 천품을 수양하는 것을 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수(山水)는 사람 됨됨이의 태생적 근거로 작용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풍수지리학의 당위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높은 산은 푸르려 옷자락에 방울 듣네. 연꽃 바람 산들산들 맑은 향기 보내오니, 이 바로 선향(仙鄉)에 든 게로구나.(후략)

고려 말 선비인 안노생(安魯生)은 이렇듯 시정의 티끌과 같은 삶을 떠나 푸른 이내에 잠긴 선계(仙界)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은둔하는 사람이 급하게 살 까닭은 없겠지요. 조선조의 선비들도 약초를 캐고 달이나 구름과 벗하며 사는 풍유경의 삶을 이상으로 삼았지요. 청학동이나 무릉도원은 난세를 피하고 싶은

곳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잔들이 되라 하네 / 산서리 맵자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불으라네(후략, 신경림, '목계장터')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 나는 이름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 초가 지붕에 박 넝쿨 울리고 / 삼밭엔 오이랑 호박을 놓고 / 들장미로 울다리를 엮어 / 마당엔 하늘을 옥삼껏 들여놓고 /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후략, 노천명,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

박목월과 신경림, 노천명의 시에서 보듯 현대의 시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호 투쟁과 복잡다단한 이익의 관계망에서 벗어난 유유자적한 느림의 삶에 대한 그리움은 본질과 근원에 대한 추구와 잇대어 있습니다. 산서리 맵고 물여울 모질어도 풀속에 얼굴을 묻거나 바위 뒤에 불어사는 게 사람이지요. 매운 산서리도 모진 물여울도 지나가는 걸 아는 까닭이지요.

씨 뿌리고 밭 갈며 사는 삶, 들꽃이나 강가의 잔들이 되어 사는 것, 산골에 들어가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사는 것은 사람이 꽃과

고향과 땅과 하나가 된 삶의 표상이지요.

이렇듯 느림의 삶은 문명의 억압에서 문득 자유롭게 된 삶이지요. 아울러 고요와 평화가 깃든 가운데에서 생명의 내적 필연성으로만 피어나는, 나와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색장연한 사람들이 깊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은 세속을 피해 본질과 더 가까워지고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옛 시인은 구름에 헤가 비지면 노을이 되고, 시내가 바위에 걸리면 폭포가 된다고 했지요. 사람 역시 환경에 따라 다른 인성과 운명을 갖지요. 자연을 깊이 음미하고 거기서 얻는 생기와 감응을 제 것으로 삼을 때 자연은 풍경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과 깊이 편연됩니다. 자연과 사람은 상호조응 하는 가운데 지리와 생리는 달게 되어 있지요. 지형지세가 순하고 풍광이 수려한 곳에서 마음의 각박함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시골살이는 자연과 벗하며 느리게 사는 삶입니다. 실존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계곡 물은 급하고 빠르지만 물은 넓어질수록 낮고 느려집니다. 더 단순하게, 더 느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천천히 밥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바라보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 단순함과 느림 속에서만 삶이 꽃피어날 수 있습니다.

늘 앉은자리를 청정도량이라고 여기고, 그 순간을 오롯하게 승취고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느림 속에서 늘 고요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인 정석주는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과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되며 등단. 시집 <물은 천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등 40여권의 저서를 펴냄. 책 <느림과 비움>, <책은 법이다>, <풍경의 탄생> 등을 잇달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지금은 안성의 수출재에서 글쓰기와 명상, 산책을 하고 있다.

작은 캔에 담긴 희망이 있어-  
내일은 더 맑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내일은 더 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생명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포스코의 환경사랑정신 - 이 아름다운 마음이 내일을 더 맑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안전한 원료를 위해 소금간 최첨단정련을 도입하였습니다.

40여년간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